

## 제21편 - 제3신앙촌시대(마지막)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85회)

<p>제21편 제3신앙촌시대 마지막 一. 삼천년성(三千年城) 1) 하늘나라 천국인 삼천년성 2)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p> <p>二. 삼신앙촌과 삼천년성</p> <p>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p>
---

##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6000년간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망의 신 마귀권세를 꺾은 승리하신 조희성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회복된 것이다. 조희성님의 몸은 세 분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보좌요(묵3:21), 새 예루살렘성이요(묵21:2), 회복된 예덴동산이요, 회복된 하늘나라 천국이요(눅 17:21),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삼천년성이다. 조희성님의 몸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묵3:21)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데 성공하신 것이다.

승리하신 하나님 구세주님은 무적장수(無敵將帥) 승리대장(勝利大將)으로 출현하신 것이다. 그리고 승리대장 구세주님이 6000년간 마귀에게 잡혀 종살이하면서 죽어가던 실패한 하나님인 인간들을 해방시켜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눅17:21).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된다. 그러나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하나님 자체로 이루어지게 되어 다 하늘나라 천국으로 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이 우주는 하나님 나라인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60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모양으로 전개되는지를 모든 경서와 예언서를 통하여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다.

## 1) 구세주가 출현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구세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출현하시는지 그 과정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다. 앞에서 조희성님이 구세주이심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혀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설명 하겠다.

錦繡江山 我東方 天下聚氣迴朝鮮 始發  
금수강산아동방천하취기 운화선시발  
中原權花園 列邦諸民父母國 萬乘天子王  
중원근화국 열방제민부모국 만승천자왕  
之王...末運歌"에서

지왕 말운가

“금수강산인 동방의 우리나라여! 천하의 운이 한국으로 돌아오는구나. 처음으로 세계 인류의 중심국이 될 무궁화 강산의 조선국이며! 세계 열방의 여러 민족 중에서 부모국이 될 것이니 이는 우리나라에 만승천자 되시는 왕중왕이 계시기 때문이다.”

先知海印出人才 幾千年間豫言定說 廻回  
선지해인출인재 기천년간예언정설운회  
朝鮮中原化 末運論에서  
조선중원화 말운론

“선지성현들이 해인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분이 나온다고 수 천 년전부

터 예언한대로 천운이 한국에 돌아와 조선이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언인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데 인류의 구세주 정도령님이 한국에서 나오시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인류의 부모국이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는데 이와같은 엄청난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지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 2) 구세주가 발하는 빛이 온 우주를 밝힌다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빛 자체였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마귀 속에 가두어 놓고 있던 마귀 권세를 떨쳐버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은 눈부신 빛의 덩어리로 부활을 하게 된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빛은 실패하실 때의 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게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사60:1)”

이기신 하나님이신 구세주께서는 이와 같이 마귀 권세인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여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온 세계는 이 빛 속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열방은 네 빛으로 행하고 열왕은 너의 비치는 광명에 행하리라(사60:3)”

이때는 해와 달의 빛은 쓸 데가 없어지면서 사라진다. 직선광선은 음양의 빛과 더불어 마귀의 빛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빛은 곡선광이기 때문에 그들이 없고

심지어 쥐구멍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전기불도 직선광선으로 음양의 원리로 불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가 되는 것이다. 구세주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햇빛과 달빛도 사라지고 음양의 원리의 모든 불빛은 다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은 곡선광선이어서 마귀의 빛과 구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빛은 어떤 물체도 투과해나가는 강력한 투과력이 있는 빛이다. 그러나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장애물도 구세주가 발하는 빛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바위도 콘크리트 물체도 다 투명한 유리처럼 투과해 나가는 거침이 없는 빛이다.

1986년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물리학 박사인 이원용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와서 강연할 때 다음과 같은 이론을 말한 적이 있다. 즉 원자의 방사선 중 감마선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납’이다. 그런데 원소의 핵 속에 있는 중성자광은 이 ‘납’을 뚫고 통과할 수가 있는데 무려 100억광년이나 되는 거리의 ‘납’도 통과해 나갈 수가 있는 강렬한 빛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조희성 구세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중성자 광은 하나님의 빛의 물질인데 100억광년 정도가 아닌 영원무궁토록 가는 거리의 납도 투과하여 통과할 수가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중성자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에 발하실 때는 온 우주는 가릴 데가 없고 그들이 없게 된다. 현재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바위나 콘크리트 벽같은 것도 다 투명한 유리처럼 투과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우주는 그들진 곳이 없고 죄인들은 그 두려운 빛을 피할만한 곳이 없게 된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자!

“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지들과 권세잡은 자들과 모든 종과 자취자들이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를 불러 가라데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려 보좌의 앉으신 이의 낮을 피하게 하라. 저희의 진노하신 큰 날이 이미 이르매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묵6:15-17)”

이때에 죄인들이 빛을 발하는 구세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워서 산아 날 가려라 바위야 날 가려서 구세주 하나님의 밝고 두려운 빛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죽으려고 하나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때인 것이다.

“대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는 것이 피하리도다(묵9:6)”

欲走走永不得(욕주시주영부득)이라고 격암유록 초장에 있는 말도 역시 죽고 싶어 죽음으로 달려가나 영원히 죽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죽을 수도 없는 세상이다. 구세주께서 사망의 신을 다 멸하여 버리니 죽음 자체가 없어진 세상이다. 영원히 하나님나라에서 사는 존재들도 또는 영원히 지옥에서 헤멜 존재들도 다 할 수가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중성자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에 발하실 때는 온 우주는 가릴 데가 없고 그들이 없게 된다. 현재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바위나 콘크리트 벽같은 것도 다 투명한 유리처럼 투과해 나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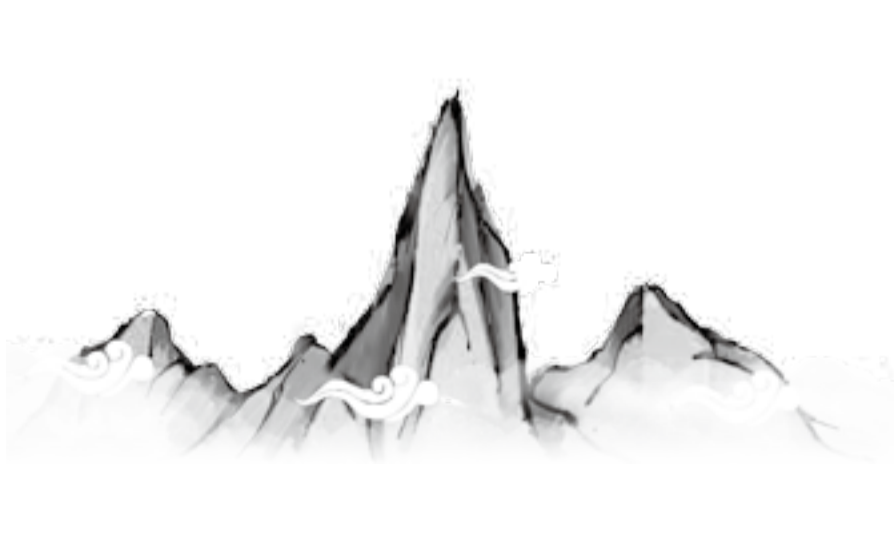
병자호란에는 폭설이 나를 죽이니 온돌방에 있으면 살고  
계묘환란에는 마귀가 나를 죽이니 정도령을 만나면 살리라

치이며 대들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살게 되느니라. 개는 눈을 보면 미친 듯이 날뛰지만 집을 본 즉 멈추니 그림 속의 강아지(개)와 같은 음이 나는 가하지(家天下)는 집 아래에 머물라는 말이니라.

雜杼世上當未運 잡지세상당말운에  
不毛之獸丁寧拂모지수정녕하다  
浮金冷金牛運 부금냉금우운에도  
似人非人傳 사인불인전했으며  
小頭無足殺我者 소두무족살아자로  
化在其中鬼不知화재기중귀부지라

은 세상에 잡다한 것이 판치는 말세의 운을 당하면 틀림없이 털 없는 짐승들이 날뛰게 될 것이니 부금(浮金=양금) 냉금(冷金=음금)이 합일한 말세의 우운(牛運)에도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이 강림한 분(似人非人天神降)이 피난처임을 전했느니라. 소두무족 즉 작은 머리에 발이 없는 것(뱀=마귀)이 나를 죽이는 것이니 그 속에 조화가 있나니 그것이 귀신인 줄을 모르리라.

畫牛廳溪庵宅曲阜 화중고계엄택곡부  
一八于八從金生 일팔우팔중금생을  
牛性在野三人一夕 우성재야삼인일석  
水兔三數終末 수도삼수중말일세  
六角八人殺我理 육각팔인살아리로



弓弓十勝天坡生 궁궁십승천파생을  
見鬼獵獵見野獸止 견귀창궤견야즉지  
畫豕即音道下 화시즉음도하지라  
風紀紊亂雜揉世上 풍기문란잡우세상  
十勝大道 심승대도일아보소

그림 속의 소가 사내를 돌아봄은 생명수 샘의 근원인 엄택곡부(성인이 계신 곳)의 금운을 따라야 살아날 수 있느니라. 소의 성품은 들에 있으니 마음의 발을 같듯 자신을 뒤야야 하느니(삼인일석三人一夕=수修) 수도(水兔) 즉 계묘년이 세 번째 운수로 종말(終末)의 운수이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천화(天火=六角八)가 하늘에서 날아와서 나를 죽이는 이치이니 하늘 나라의 두둑에 내려서야 즉 수신 적덕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살아날

天地否卦春生之氣천지비괘춘생지기  
八卦陰陽相配故 팔괘음양상배고로  
相生之理體義상생지리에의로다

역의 이치에 따라 천지 음양이 순환하는 중에 천지인으로 세 번 변하고(天人天地天天, 地人地地地地天, 人人人人地人天) 이것을 아홉 번 다시 반복하는 음이 돌아오네. 유불선이 삼재(천지인)의 이기(理氣) 묘법에 따라 역리로 나타나는데 소남 소

격암유록 해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박명하 선생 저서 『격암유록신해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b>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b>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b>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b>	
<b>승리신문</b>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별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b>광고 및 구독신청</b>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a href="http://www.victor.or.kr">www.victor.or.kr</a>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녀가 주장하는 선천하도는 복희역으로 나타나 이기(理氣)의 조화법(造化法)으로 선천 유도는 바르고 밝은 사람의 도리에 속하여 72현인을 배출하였고 시조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수도하였느니라. 선천의 복희 팔괘는 건남곤북(乾南坤北=건괘는 남, 곤괘는 북에 배치됨)으로 천팔괘(天八卦)에 속하니 천지비괘(天地否卦)로서 춘생지기 즉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운기를 나타내는 괘이니라. 천팔괘는 팔괘와 음양이 서로 짝이 맞으므로 상생의 이치가 있음에 예의 바른 세상이 되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